

‘주먹밥·헌혈’ 되살아난 80년 5월 ‘대동정신’

기념행사 ‘시민난장’

동구 민주광장·금남로 일대서

64개 부스...남녀노소 발걸음

광주 의미·12·3 극복 되새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눠주는, 이 주먹밥이야말로 대동정신의 상징이네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인근 금남로 일대에는 수많은 전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제46주년 기념행사 ‘시민난장’에 참여하는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은 각자의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난장은 전시·홍보·체험 부스, 오월 굿즈 판매, 주먹밥 나눔 행사 등 64개 부스로 꾸러졌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절로 나는 초여름 더위가 정오 전부터 이어졌지만, 금남로 거리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줄지 않았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교복 차림의 학생 등 각양각색의 시민들은 금남로와 민주광장 곳곳을 둘러보며 1980년 5월 광주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주먹밥 부스였다. 오월어머니집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등은 각각 껌과 소금,

참기름, 김을 섞어 만든 ‘오월 주먹밥’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를 받아든 시민들은 그늘에 앉아 가족·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이게 당시 시민들이 먹었던 주먹밥이냐”, “생각보다 맛있다”고 호평했다.

프랑스 출신 도네스 위고(27)씨는 “‘대동정신’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눠주는 이 주먹밥에 담긴 마음을 통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며 “이 마음은 불의에 싸운 오월 정신으로 이어졌고,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이겨낸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대동 정신의 또 다른 상징인 ‘헌혈’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

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가두 행진도 전개했는데, “당신의 헌혈! 오월의 역사와 정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레드캠페이너’들은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며 헌혈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

이 외에도 부스에서는 물뿔을 활용한 헌혈 퀴즈와 ‘생애 첫 헌혈 서약’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헌혈 퀴즈와 전시를 둘러보며 5·18 민주화운동 기간 부상자들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건어붙였던 광주 시민들의 헌혈 정신을 되새겼다.

부스를 찾은 임예린(8)양은 “5·18 때 시민들의 헌혈로 다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나중에 헌혈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연상기자

추모·체험·다짐...민주주의 대축제 열기 ‘후끈’

이모저모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시민난장이 열린 금남로 일대는 물론, 광주 도심 곳곳은 추모와 체험, 다짐 행사를 통해 오월 정신을 기리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민주러너 1천200여명 5.18km 달려 “민주러너들이여 도청에서 만남시대”

이날 오후 5시18분께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이 같이 외치며 옛 전남도청을 향해 달려갔다.

1천200여명의 시민들이 약 5.18km를 달린 이날 행사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제46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RUN 5·18-도청가는 길’이다.

코스는 광주역,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옛터, 금남로를 거쳐 5·18민주광장까지이며 경유지에는 5·18 당시 상황을 되새기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역 일대에서는 뮤지컬 극단 ‘판청’이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적힌 버스 앞에서 당시 시민들의 항쟁 상황을 재현했다.

배우들은 “광주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민간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청으로 모입니다”고 외치며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을 전했다.

옛 전남도청이 가까워지자 “조금만 더 힘내자”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완주한 후에는 너도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은 올해 특별기획사업으로 ‘RUN 5·18’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오후 행사 참가자들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조영권기자

나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철주(67)씨는 “5·18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길거리에 흩어진 우리 파편과 총탄 소리가 아직도 기억난다”며 “젊은 세대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 그날의 아픔을 느끼고 역사를 배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적지 학습·굿즈 판매 ‘복적’

5·18민주화운동이 다소 낯선 아이들은 시민난장의 ‘5·18 사적지 퍼즐 조립하기’에서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

기념행사위원회가 직접 운영한 이 부스에선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모형으로 만들어보며 각 장소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종이 퍼즐과 테이블에 놓인 도안을 번갈아보며 조립하던 아이들은 모형을 완성한 후에 “실제로 있는 건물이나”, “여기선 어떤 일이 있었나”고 묻기도 했다.

퍼즐 조립 행사에 참여한 이준혁(11)군은 “처음에는 장난감 만드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으니 슬픈 역사라는 걸 알게 됐다”며 “가족들과 기념관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굿즈 판매 부스도 인기였다. 국립5·18민주요

지의 추모탑 모양의 차량용 방향제, 5·18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등이 새겨진 스카프와 팔찌 등을 구입한 방문객들은 “일상에서도 오월 광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국가폭력피해자 위로공간도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 등 국가폭력에 대해 배우고 추모하는 부스에도 방문객의 발걸음이 잇따랐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소속 ‘오월 심리치유이동센터’가 운영한 부스에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오월의 봄이 오길’,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메모지에 적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다시 금남로로...’ 민주평화대행진 ‘장관’

민주평화대행진 행렬은 오후 4시부터 광주역과 광주고등학교, 북동성당, 광주교에서 각각 출발했다.

5·18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금남로로 향했던 ‘민중대성회’를 재현하는 이 행렬에는 각 계각층의 시민 약 2천명이 함께했다.

행렬 앞 풍물패는 북과 팽과리 등으로 도심의 분위기를 한껏 달궜고, 그 뒤에선 시민들은 “오월 정신 계승”,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외쳤다.

이들이 금남로로 들어올 때 오월어머니들은 ‘오월 주먹밥’을 나눠주며 46년 전 광주가 보여준 공동체 정신을 재연했다.

행진을 지켜본 김수현(34·여)씨는 “46년 전 계층을 막론하고 함께했던 저항 정신과 의미를 오늘의 행렬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며 “오월 정신과 이를 통해 피어난 민주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서형우·윤찬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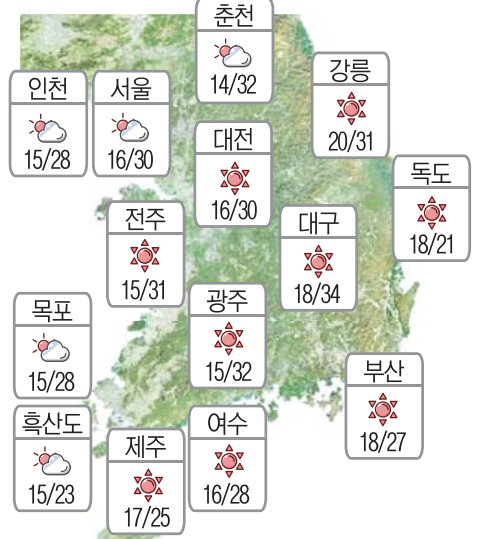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해질 19:32 🌧달돋이 06:05 달짐 21:37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5/32	장성	구름조금	14/30
목포	구름조금	15/28	보성	맑음	14/28
여수	맑음	16/28	함평	구름조금	13/30
나주	맑음	14/31	순천	맑음	15/29
완도	맑음	15/30	영광	구름조금	13/29
구례	맑음	14/32	진도	구름조금	12/25
강진	맑음	13/30	흑산도	구름조금	15/23
해남	맑음	12/29	고흥	맑음	14/29
광양	맑음	15/31	담양	맑음	14/31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면바다(북) 0.5-1.0	0.5-1.5
	면바다(남) 0.5-1.0	0.5-1.5
남해	앞바다 0.5-0.5	0.5-0.5
서부	면바다(동) 0.5-1.0	0.5-1.0
	면바다(서) 0.5-1.0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3:09	08:21	여수	09:52	03:50	10:25
	15:06	20:22		22:34	15:53	23:13
			동동			16:49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차 80**
더위 조심하세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19일(화)	20일(수)	21일(목)
☁(16/30)	☁(18/24)	☁(17/24)
구름많음	구름비	구름조금
22일(금)	23일(토)	24일(일)
☁(16/27)	☁(15/25)	☀(16/28)
구름조금	구름조금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순해보험협회